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22(수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6. 22(수) 08:15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나 석 권 (2150-4510)	담당자	김 완 수 사무관 (2150-4512)

제목 : 「2011년 제13차 경제정책조정회의」 개최

□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.22.(수) 07:30 정부과천청사에서 「**2011년 제13차 경제정책조정회의**」를 개최하여,

○ ‘**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**’ 등에 대해 논의함

< 인사말씀 >

① 박재완 장관은 「**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**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던 2011년이 벌써 반이 지났다면

○ 유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**거시경제가 양호한 흐름을** 이어가고 **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**,

○ 물가상승 등으로 **서민생활이 어렵고 부문간 격차가 이어지는** 가운데 **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**

② 하반기 여건을 살펴보면, **세계경제 회복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**, **주요국 경기, 유럽 재정위기, 국제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**

○ 또한, **내수부진과 가계·기업 부문 등의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** 있어 **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함**

<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>

① 박재완 장관은 '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'과 관련하여

②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

- ①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완화를 통한 **서민생활 안정**,
- ② **내수기반 강화 및 경제체질 개선**,
- ③ **미래를 내다보고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**을 강조

- 우선,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**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**이 핵심과제 이므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다음으로 **대외여건의 불확실성**이 큰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**경제체질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**
 - 가계부채,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**내수기반을 확충**하여야 하며
 - 특히, 최근 증가하고 있는 **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**
- 또한, **건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한편**,
 - **부문간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**를 위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대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, **재정의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**해야 함
- 아울러, **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FTA 노력**을 지속하는 한편, **고유가·인구변화 등 미래위험에 대비**하여야 함

③ 박재완 장관은 최근과 같이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**다양한 정책목표들의 상충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면서**

○ **유관부처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이러한 목표간의 상충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편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고**

○ 또한, **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 신뢰를 높여야겠다고 하면서**

- 가장 안 좋은 정책이 **오락가락 “之”자 행보**를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

○ 단기적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**미래를 내다보고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**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함

⑤ 박재완 장관은 오늘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「**2011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**」을 마련하여 **6월말에 발표할 예정인 바,**

○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부처가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**경제팀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주기를 기대**한다고 언급함

기획재정부 대변인